

대순진리회 "사찰서 시주 나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불교 사찰 금전 요구

대순진리회가 불교를 사칭하며 접근, 일반인과 불자를 현혹해 거액의 시주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 종교는 가가호호 방문까지 나서며 조계종 사찰을 방자하는 등 불교를 왜곡하고 있지만 불교계에 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어사 신도인 정모씨(54·부산 금정구)는 최근 '범어사에서 시주 나온 보살'이라고 주장하는 두 중년여인의 방문을 받았다. 이 둘은 미심쩍게 여겨 "주지스님의 법명을 대보라"고 질문한 정씨는 이들이 대순진리회 신도임을 알게 됐다.

이처럼 대순진리회가 불교를 사칭하며 포덕(불교의 포교개념)에 나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순진리회 신도들은 2인1조로 팀을 조직해 길거리나 상가, 가정 등을 방문해 "선방에서 나왔다" "불교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사찰이 있는데 함께 가자"며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접근한다.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시작한 뒤에는 "조상 중에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등의 불길한 이야기를 꺼내 돈을 내고 제사를 올리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일반인들이 불교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 '불교'로 접근해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양모씨(28)는 "절을 짓기 위해 시주금을 받

고 있다"며 집을 방문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30만원을 건네줬다가 뒤늦게 이것이 대순진리회의 일반적인 수법임을 알고 분개했다. 양씨는 "대순진리회도 대순진리회지만 이런 일을 대책 없이 내버려두는 불교계에 더욱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안티대순진리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순진리회피해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와 같이 '불교'나 '사찰'을 사칭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 측은 피해자의 70%가 주부고 나머지 30%가 불교에 호감을 가진 학생계층이라고 밝혔다.

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종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중교 향의 성명서 발표를 통한 대순진리회측의 포덕활동 시정요구 △대표성을 지닌 기구에서 범법교적 '불교사칭피해사례' 접수창구 마련 △신도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의식 함양 △사화적 홍보 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하는 일이다. 각 종단이 신도교육시, 불교를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주의하도록

"사주 봐준다" 현혹...피해사례 수백건 교계 미온대처, 범불교적 대책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대순진리회측은 "각 방면(지부)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중앙에서는 통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포덕이 재가불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탓에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사례 수집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또 경제적 손실이나 가혹로 인한 가정붕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족들은 이미 대순진리회측에 신분이 노출되어 선불리 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피해 사례를 찾아내는 일은 더욱 어려

록 교육해 피해를 막는 한편,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불교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는 "불교계가 일반인 대상의 포교를 방지하고 있는 동안 신종교가 그 틈을 파고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절, 사주, 제사' 등과 연관 지어 금품을 요구하는 단체'로 비칠 수 있다. 불교계는 외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범불교적인 대책과 사회적 활동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국제청소년불교문화캠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병래)는 오는 1월 14~15일 이틀간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6 국제청소년불교문화캠프'를 서울 길상사에서 개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외국인 청소년들과 어울려 한자공예, 팻살떡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저녁예불, 108배

와 참선 등의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10~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이번 캠프는 1월 8일까지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02)722-2206

이은비 기자

고구려문화유적 탐방

진각종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대학생 지도자들이 고구려유적을 탐방했다.

(사)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 최

성)는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젊음의 기상으로 삼인진리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변과 백두산 일대에서 2005 동계 VIYA 대학학생캠프를 개최했다.

고구려 문화유적지 탐사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 오녀산성과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장수왕릉, 고구려의 기원과 건국신화가 기술돼 있는 광개토태왕비를 답사했다.

김원우 기자

성도절 철야용맹정진 열기

전국사찰서 음악회등 축하행사 함께 열려

1월 7일(음력 12월 8일)은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되신날(성도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열한 정진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이날, 불교계는 전통적으로 부처가 되기 위한 용맹정진으로 각오를 다진다. 올해에도 전국의 사찰들은 용맹정진,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부처님되신날을 맞는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7일까지 8일간을 수행정진 주간으로 정한 조계사는 '지혜의 등 밝히기' '철야정진'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매일 108배,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 나눔 실천 등을 수행지침으로 정하고 이를 수행정진 주간 동안 신

도들로 하여금 실천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계사는 12월 16일부터 1월 14일까지 부처님되신날을 기리고 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지혜의 등을 내건다. (02)732-2183

제천사암연합회와 수원포교당은 음악회로 부처님되신날을 맞는다. 제천사암연합회는 1월 7일 오후 2시 제천문화회관에서 '불자와 함께 하는 성도제일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수 장미화씨, 보현 스님 등이 출연해 기쁨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043)652-0897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정진에 들어간 수원포교당은 1월 6일 오후 6시 촛불의식을 시작으로 봉축음악회를 연다. 전야제 후에는 7일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으로 부처님 성도의 의

미를 되새긴다. (031)255-2692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사원주지연 협회 주최로 대규모 연합법회가 열린다. 1월 7일 오후 2시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이 법회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동화사 주지 지성, 대성사 주지 정산 스님 등 지역 스님과 사찰 신도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화사 등불패의 사물놀이, 서봉사 난타공연 등 식전행사와 부처님되신날 기념법으로 진행된다. (053)629-9500

대전지역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청림회는 충남대교수불자회와 함께 1월 7일 오후 2시 충남대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성도제일 기념 특별대법회'를 진행한다. 니르바나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과 삼사덴심팀의 공연이 마련된 이날 법회에서는 문경 김홍사 회주 자광 스님이 법사로 나서 대전지역 불신

을 다진다. (042)541-1505

12월 31일부터 부처님되신날인 1월 7일까지 정진주간으로 정한 서울 봉은사는 매일 기도정진, 1월 6일 철야정진, 7일 중앙승가대학장 종범 스님 초청법회 등을 통해 성불의 의지를 다진다. (02)3218-4801

서울 역촌동 열린선원은 1월 6일 오후 8시부터 7일 새벽 6시까지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정진은 아나빠 나스터 수행 및 향수해례, 사상례, 신중단 예경 등으로 진행된다. (02)386-4755

순천 송광사는 1월 6~8일 '철야용맹정진 산사체행' 행사를 연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061)755-0107

이 외에도 김천 직지사(054-436-6174), 서울 불광사(02-413-6060)와 도선사(02-933-3161), 능인선원(02-577-5800), 안양 한마음선원(031-470-3100)이 1월 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철야정진을 실시하는 등 전국 사찰에서는 부처님되신날 맞이 용맹정진이 진행된다.

박병영 기자



4대종교 성직자들 사랑의 하모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뜻을 모아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성직자들이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음악회에서는 신부, 목사, 교무, 스님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의 수익금은 전액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환경뉴스 1위 빈그릇운동·지을 스님

1년 여 만에 120만명이 동참한 '빈그릇운동'과 올해 초 천성산 살리기 100일 단식을 진행한 지을 스님이 2005년 불교계 환경뉴스 1위에 선정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지난해 12월 28일 불교환경단체와 불교계언론 NGO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2005 불교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계몽산 살리기 대전총남 범불교연대' 창립과 '북한산 관련 봉선사·회통사의 보살금수령'을 각각 3위와 4위, '통영미륵산 게이블라 공사 강행'과 '불국사 불탑 골프연습장 조성'을 공동 5위로 올렸다. 불교환경연대는 또 '은해사를 중심으로 한 수목장 운동 확산'과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 논란' 등도 주요 이슈로 발표했다.

유철주 기자

목탁소리

불교시민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온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은 끝내 해체 되는가?

경불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재방)가 지난 12월 26일 "비상대책위는 논의 끝에 13인의 대책위원 중 12명 의 찬성으로 경불련을 해체하는 결의"를 공시해제를 발표했다.

비상대책위는 "경불련은 그동안 조직체편과 활동방향에 대한 내부 활동가들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해왔다"며 "2003년 내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실질적인 활동을 벌여오지 못해 부득이하게 해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불련 임효정 시민연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는 아무

런 대표성이 없는 정체불명의 기구"라며 "경불련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해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교계 안팎의 활동가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조직 내부문제가 결국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한 활동가는 "불교시민운동의 장을 연 경불련이 최초하는 것 같아 쓸쓸하다"며 "양측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15년 동안 노숙인 재활, 해외구호,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해온 경불련, 많은 사람들이 경불련호(號)가 순항하기를 바라고 있다.

■유철주(취재부 기자)

광덕산 난개발 안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12월 21일 광덕사와 인양암이 위치한 광덕산 중턱에 가옥을 신축하겠다고 두 사찰이 등산로에 설치한 화단과 계단, 석축 등을 철거해 달라는 건물주의 차량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사찰의 보호와 보존, 그리고 광덕산 등산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차량통행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사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불기2550년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공동체 조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원담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정 : 법전 월하 ● 원로위원장 : 범종 ● 원로원 : 월하, 성민, 혜일, 민공, 해공, 혜정, 백공, 천광, 해산, 정오, 일봉, 도일 ● 을원장 : 성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종정 : 성민, 혜일 ● 유나 : 봉선 	<p>경기 동부총무원장 : 도연</p> <p>경기 남부총무원장 : 법정</p> <p>울산남부교구 총무원장 : 수덕</p> <p>중국남경 총무원장 : 해산</p> <p>미국뉴욕 총무원장 : 성산</p> <p>일본동경 총무원장 : 정대</p> <p>● 전국신도회 고문 : 김윤주</p> <p>회장 : 서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원 원장 : 혜인 교육원장 : 일봉 종회의장 : 혜명 총무부장 : 동산 감찰부장 : 상산 규정부장 : 월성 호법부장 : 지오 포교부장 : 정산 비구니부장 : 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교원장 : 혜정 국장 : 고산 국장 : 무연 국장 : 지호 국장 : 도현,대정 국장 : 효천 국장 : 법련,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장 : 용산 국장 : 대도 국장 : 한산 국장 : 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 남부교구 총무원장 : 상산 서울 서부교구 총무원장 : 법선 서울 동부교구 총무원장 : 대도 인천 교구 총무원장 : 혜원 부산서부교구 총무원장 : 정오 부산동부교구 총무원장 : 봉선 전북 교구 총무원장 : 정산 제주 교구 총무원장 : 덕산, 남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교구 총무원장 : 동각 충남교구 총무원장 : 무광 충북교구 총무원장 : 일봉 경남교구 총무원장 : 혜명 경북교구 총무원장 : 해관 전남교구 총무원장 : 대성 대구교구 총무원장 : 도월 울산동부교구 총무원장 : 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화불교대학 학장 : 범종 대학교수 : 범종, 백공, 혜정, 정산, 월곡, 봉선, 박수규, 김수정, 김동균 ● 삼화불교대학원 원장 : 해산 대학원교수 : 범종, 일봉, 해산, 정수 교 : 정금목 ● 중국 남경종의약대학 총장 : 향평, 혜인 부총장 : 윤경석 학생처장 : 손영진 집임교수 : 신병용 이사 : 손정일 학생주임 : 이희목, 심원일, 이은재 교 : 손정, 주소리 ● 삼화불교신문사 사장 : 백공 발행인 : 혜인 이사 : 정오, 동산, 정산, 법련, 해은, 각원, 덕산, 중비, 고산, 정금목 취재기자 : 정재훈 	
<p>■ 총무원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p> <p>TEL 02) 511-2026, 2027, 2028, 3445-7375, 7376 / FAX 02) 511-2028</p> <p>인터넷주소 : 삼화불교대학 www.samhwade.com 남경종의약대학 www.njutcm.co.kr</p> <p>E-MAIL주소 : samhwade@hanmail.net</p>			<p>총무원</p>